

# 제13회 중앙아시아.러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CA 1037

한글 성명: 미르하미더바 구잘하노

나를 설레게 하는 유전학.  
배움에 대한 욕심이 넘치는 18살 나.  
통번역가가 된다는 꿈을 유전학자가 되  
기 위해 포기한 나. 유전학이 어떻게  
내 마음을 붙잡았을까?  
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세월이 었다. 한  
국어능력시험에서 6급을 땀 후미 한국  
에서 온 대표단 통번역사로 활동하기  
시작했다. 그때 나는 17살이 었다, 통역사  
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 바,  
나는 한영 통번역가가 되는 것이 꿈이  
되 었다.  
의학계열 고등학교를 다니는 나는 학  
교 공부와 외국어 공부, 그리고 밀, 이  
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잘  
조절해야 했다. .  
고등학교 졸업 후 앞둔 <sup>그</sup>시간. 부모님의  
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장 위대한  
통번역 대학교에 입학할 거라는 마음으  
로 GKSB에 지원했다. TOPIK (한국어능력시험)

(Global Korean Scholarship) 총 5 장 중 1 번째 페이지

성균관대학교



# 제13회 중앙아시아.러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CA1037

한글 성명: 미르하미더바 구잘러는

에서 6급, 영어능력시험(토플)에서 6점,  
봉사활동, 학교에서의 우수한 성적 이  
모든 것이 내가 GKS에서 합격할 수  
있 <sup>다</sup>는 <sup>것</sup>을 어두움 속에서 빛처럼 명  
확 <sup>하게</sup> <sup>해</sup> GKS 합격자 발표날. 마음이 두  
근거리며 결과를 기다리고 <sup>내</sup> 있는 나. 서  
럽게도 불합격. 그 순간. <sup>✓</sup>세상이 무너진  
것 같았다. 이제 앞날이 막막하다. 이때  
까지 가졌던 내 마음속에서의 꿈은 작  
은 ~~조작~~으로 부서진 것 같았다.  
이때 어머니의 "걱정 따, 괜찮아. 볼까  
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지원하면 되잖아."  
이 말 한 마디가 사라졌던 내 희망과  
힘을 다시 살려주었다.  
GKS에서 떨어진 후에 다시 GKS에  
지원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했다. 그러  
나 나는 기다리기 싫었고, 어떻게 되든  
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 
를 원했다.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 
과의 통화는 대학교 입학에 대한 내



# 제13회 중앙아시아.러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CA1037

한글 성명: 미르하미더바 구줄하노

각 망 을 부 풀 오 르 게 했 다 . 그 래 서 통 번 역  
 가 아 니 더 라 도 ~~대 학 교 에 자 원 하 고 다 른~~  
 다 른 전 공 으 로 대 학 교 에 입 학 했 다 . 그  
 전 공 은 바 로 유 전 학 이 다 .  
 유 전 학 . 그 당 시 에 나 는 이 전 공 에  
 대 해 아 무 지 식 도 없 고 , 관 심 도 아 예  
 없 는 분 야 . ~~대 학 교 등 학 교 를 졸 업 했 으 나 가~~  
~~비 가 자 원 하 는 사 실 ,~~ 나 도 왜 이 분 야 를  
 선택 하고 내 삶 의 수 년 을 <sup>내 안에</sup> <sub>아예 대 한</sub> <sup>정 이</sup> 없 는  
 유 전 학 에 투 자 하 기 로 결 심 했 는 지 이 해 가  
 만 갓 다 . 그 러 나 이 제 대 학 교 에 전 학 했  
 고 . 열 심 히 공 복 할 수 밖 에 없 다 .  
 1 학 년 2 학 기 . 이 때 까 지 유 전 학 과 관  
 련 된 책 한 권 도 만 지 많 았 고 , 수 강 하  
 과 목 중 에 도 이 와 관 계 가 있 는 과 목  
 이 하 나 오 없 다 . 그 런 데 바 로 1 학 년  
 2 학 기 . ~~이 때 까 지~~ 내 삶 을 360° 로 다 른  
 방 향 으 로 변 경 시 킨 한 학 기 . ∴  
 다 른 학 생 들 은 따 라 잡 기 위 해 서 학 생  
 예 습 하 고 생 물 학 '수 림' 에 들 어 갔 다 . 교 수



# 제13회 중앙아시아.러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 - CA 1037

한글 성명: 미르하미더바 구잘러느

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 대부분 경우에  
 서 내가 먼저 손을 들고 대답했었다.  
 그러던 어느 날. 강의가 끝난 후에 교  
 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이르 오  
 라고 하셨다. 영어로 "예 교수님, 혹시  
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?" 라는 내 질문.  
 실험실에서 내 어시스턴트 되고 싶어요?  
 라는 질문형의 응답에. 나는 참판 동 황  
 스러우면서 "예, 물론이죠."라며 응답했다.  
 이때는 내가 ~~알~~새로운 꿈에 향한 도약의  
 첫 걸음이라는 것을. . . 상상도 못 했다.  
~~실험실에서 어떤 일을 맡는지를 모르~~  
 실험실에서 내가 맡고 책임을 - 처야  
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나는,  
 교수님께서 물어 보라고 주셨던 논문을  
 통해 교수님께서 유전학자라는 것을  
 알게 되었다. 실험실에서도 내가 해야  
 할 일은 멸종 위치에 처한 까마귀 종  
 의 DNA를 건네는 일이었다. 교수님께서  
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운 다음

# 제13회 중앙아시아.러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CA1037

한글 성명: 미르하미더바 구잘허스

<sup>스승</sup>  
 메<sup>✓</sup>처음으로 DNA를 건너는 체험이 내  
 마음을 설레게 했다. 이 순간에서 나는  
 무언가를 살릴 수 있고, 무언가가 더욱  
 오래 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<sup>수확이</sup>  
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. 이때부터 내<sup>✓</sup>웃  
 기 정도로 나는 유전학 공부에 빠졌다.  
 유전학에 대한 배운 모든 것으로 내  
 개성을 채우고 실천에 옮기고 싶었다.  
 유전학과 관련된 무슨 일이든 <sup>영향을</sup>  
 책이든, 새로운 실험이든 항상 <sup>선택</sup> <sup>마음으로</sup> 같은 생  
 각 '나는 무언가를 살릴 수 있다, 나는  
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 
 수 있다.'  
 이때까지 먹놀려온, 나도 알지 못하는  
 나의 열정과 관심을 유전학이 밖으로  
 이끌어 나왔다. 이제 나는 작은 분자의  
 세상, DNA 세상인 유전학을 통해 삶을  
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.  
 유전학이 내 마음을 설레는 뜻 아직  
 다른 것 하나도 못 했다. ~~의는 어떤~~